

# “막 싹 틔웠는데”... 퍼붓는 비에 ‘한숨’

###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 서부는 ‘감자’ 동부 ‘당근’ 농민들 물 빼기 종일 분주

나흘째 비날씨가 이어진 29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인근. 농경지와 바로 접한 도로에는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 온 감자 모종들이 나뭇굴고, 침수가 걱정돼 빗속을 뚫고 나온 농민들은 물빼기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에서 만난 정모(40)씨도 물에 잠긴 감자밭에서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작업중이었는데,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씨는 “이렇게 비가 계속돼 밭이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자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낮부터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제 막 감자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집중호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최근 몇년간 가을장마가 없어 감자 파종시기를 조금 앞당겼는데, 이같은 상황이 돼 하늘이 야속할 뿐”이라며 “계다가 다음주에도 비 날씨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를



최근 제주지역에 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한 농민이 물에 잠긴 감자밭을 살피고 있다. 이태윤기자

입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인근에 선 감자밭 등 물에 잠긴 농경지가 곳곳에서 확인됐고 농경지 진입로가 침수돼 아예 밭으로 진입이 어려운 곳도 눈에 띄었다.

지난 26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대정읍과 안덕면 등 서부지역에서는 감자, 성산읍과 제주시 구좌읍

등 동부지역에선 당근의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애월과 한림지역에선 50~60%의 양배추 모종 정식이 이뤄졌는데, 비날씨가 이어져 정식이 늦어지면 모종이 노화할 우려도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감자 주산지인 대정읍 지역에서는 50% 정도가 파종됐는데, 특히 중산간에서

침수가 많이 발생했다. 농가에서는 침수된 밭에서 신속한 물빼기와 비가 그치면 썩음병 전염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침수된 밭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야 농작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다음주쯤부터 농가의 피해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젖은 비날씨에 채소농가 발만 동동

### 내주 비 예보... 추석도 겹쳐 파종 작업 물리면 일손 부족 생육불량·병해충도 큰 우려



침수피해를 입은 제주시 한림읍의 한 채소 밭. 이상국 수습기자

8월 젖은 비날씨와 함께 최근 ‘가을 장마’가 길어지면서 노지 채소재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파종 이후의 비 피해와 함께 향후 파종시기에 따른 수확시기가 집중되며 농가의 인력난 가중은 물론 가격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9월 초 있던 비날씨 예보와 함께 태풍 내습 가능성이 우려까지 겹치면서 재배농가가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에는 보름 이상 비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6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9

월 초 다시 비날씨가 예보됐고 이후에는 추석명절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농가의 근심이 잦아들 틈이 없다. 특히 파종이 예년보다 늦어 한꺼번에 작업이 물리면서 일손 확보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

는 실정이다. 예년이면 동부지역의 중산간을 중심으로 월동무를 비롯해 서부지역의 양배추와 브로콜리의 파종·정식작업이 한창 이뤄져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곳은 날씨가 일부 당근과 감자 등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각종 병충해 발생은 물론 파종이 늦춰지는 작목의 경우 생육불량의 우려가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 초 양배추 정식과 브로콜리 파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기간의 날씨가 최대 변수로 올해 채소농사의 성패가 달렸다”라며 “최근 비 피해를 입은 당근 등의 농가에 대한 조사를 읍면등을 통해 진행 중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대피비와 농약·비료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오 성산읍장은 “최근 많은 비로 인해 지역내 일부 당근, 감자, 콩 재배농가의 피해가 있었다”며 “앞으로의 비날씨가 주목되는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백규탁기자

##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확정

### 제주지검 항고 포기 “도민 정서 등 고려해”

검찰이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지검법정청은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은 4·3 생존수형인 18명에게 국가가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생존수형인들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0년 동안 구금돼 입은 피해에 대해 구금 기간, 재산상 손

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사 보상금을 책정했다.

특히 형사 보상은 최저임금(6만 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1일 보상금 최대치인 33만4000원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4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항고 포기 이유에 대해 “법원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또 제주도민들의 4·3에 대한 정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 포기에 따라 생존수형인들은 제주지검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검찰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현석기자

## 난폭·얇체운전 암행순찰차가 잡는다

### 경찰 10월부터 본격 운영 사고 위험 높은 도로 배치



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한다. >> 사진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암행순찰차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에서 운영 중인 교통순찰차 1대에 속도 측정과 영상녹화 등 단속에 필요한 시스템을 장착하고 외관상 일반 차량과 같은 암행순찰차로 구조를 변경했다.

또 주요 구간 32개소에 암행순찰차 활동 중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도내 주요 도로 전광판 43곳에 활동문구를 내보내는 등 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평화로·변영로)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근무자는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활동으로 인해 ‘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 시켜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수의 난폭·얇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과 억제 병행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 70대 호텔 인근서 숨져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모 호텔 인근구조물 인근에서 이모(76)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호텔 관계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귀포경찰서와 해당 호텔측 등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30일까지 가족과 함께 해당 호텔에서 투숙할 예정이었다. 이씨는 사고 직전 가족에게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호텔 밖을 나갔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태윤기자

### 제주도정 소식

19.8월 공동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19. 8. 16. ~ 8. 31.

제주 성음마을 성음무형문화재전수관  
전통체험 교육수강생 모집 안내  
○ 교육기간 : 2019. 09. 02. (월) ~ 10. 26. (토) (주 1회, 총 8차시)  
○ 모집기간 : 2019. 08. 23. (금) ~ 08. 30. (금)  
○ 모집방법 : 인터넷 및 전화접수  
- 인터넷접수 : www.jeu.go.kr/seongeup/index.htm (검색창 - 성음민속마을)  
- 전화접수 : 제주 성음마을 성음무형문화재전수관 ☎064-710-6796  
○ 교육과정 및 내용

과목	교육시간	모집인원	교육기간	수강료	강사	개강일
고소리춤	매주 토요일 11:00~13:00	희망도민 12명 내외	총4차시 (주1회)	무료(재료비 자부담)	김희숙(고소리춤 전수조교)	2019.09.07.
오매가솔	매주 월요일 10:00~12:00	희망도민 12명 내외	총4차시 (주1회)	무료(재료비 자부담)	강경순(오매가솔 전수조교)	2019.09.02.
제주민요	매주 수요일 11:00~13:00	희망도민 12명 내외	총4차시 (주1회)	무료	강문희(제주민요 전수조교)	2019.09.04.

\* 과정별 수강생 5명이하인 경우 취소  
○ 운영요령  
• 모집인원 선착순으로 선발 • 재료비 수강생 부담  
• 수강생은 강좌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상해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 본인이 지어함.

가을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안전점검 안내  
○ 점검기간 : '19. 8. 26 ~ 9. 27(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 정기적 실시  
○ 점검대상 : 도내 120개(제주시 74, 서귀포시 46) 초등학교 등 주변  
\* 유해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점 검 반 : 관련기관 합동으로 편성·운영  
- 도+교육청+제주지방경찰청+자치경찰단+유관기관·단체  
○ 점검분야 : 4개분야(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2019년도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9. 8. 27. ~ 9. 2. (공휴일 제외)  
- 서귀포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단체인 경우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문의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064-760-2243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참조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노동자 희망 찾기 한마당 개최  
■ 일시: 2019. 09. 07. (토) 13:00  
■ 장소: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 주요 행사내용  
○ 첫째 마당 ≡ 개회식 및 주요 내·외빈, 노동자, 도민이 함께하는 참여마당  
○ 둘째 마당 ≡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동아리 공연  
○ 셋째 마당 ≡ 노동자 권리찾기의 첫걸음: 2019 노동상식 골든벨  
○ 시상 및 폐회 ≡ 우수노동자 수기 공모에 대한 시상, 폐회 및 기념촬영  
□ 부대행사  
○ 무료 상담요령 ≡ 노동법률, 취업상담, 미술심리검사 및 간단한 의료진단 서비스  
○ 체험 및 전시 ≡ 사진 공모전 수상작전시 및 화분만들기 떡만들기, 오카리나 만들기 등 무료체험  
□ 행사참여 관련 문의: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기획운영총괄팀 (064)753-5667

##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 잡초의 경감
- ▶ 높은 저장성
- ▶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 페르카
-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 뿌리혹병의 경감
- ▶ 강력한 라임효과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